

새로운 승리를 향한 힘찬 진군길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남다른 존엄과 긍지를 안고 새해의 첫 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 인민들의 기세와 열의는 뜨겁다. 지난해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에도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려는 마음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올해의 휘황한 투쟁목표와 방략들을 환히 밝혀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반에서 활성화의 돌과귀를 열어제끼기 위한 과업과 방도, 자위적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나라의 군력을 역척같이 다지며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다.

공화국이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 지난 몇해어간에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것은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천리헤안의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령활하고 로숙한 전개력은 그이의 특출한 자질이고 령도실력이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자기 발전의 길을 옳바로 걸어나간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없다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던 자랑스러운 령사도 순간에 옛일로 묻히고만다.

위대한 계승은 위대한 창조를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비통한 마음을 안고 이 땅의 남녀노소모두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이미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며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대상건설에 힘을 넣을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

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민이 영원히 지녀야 할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담겨져있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직선주조가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통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공화국의 전쟁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이 핵무력완성의 령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존엄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더 힘있게 매진할수 있게 된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언명하시었다.

이것은 공화국이 평화수호의 보검을 자기손에 틀어쥐었으며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역력을 의거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비약과 변혁의 원동력이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 래일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국가경제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은 나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주체 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에게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령사적인 호소문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호소문에서 전체 군인건설자들이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령사적인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퍼올렸으며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마식령속도는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위대한

경속도》를 창조하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령사적인 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길을 지퍼올렸으며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이렇게 창조된 마식령속도는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위대한

노래는 시대의 메아리이며 사람들의 생활감정의 반영이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 애창하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구절도 있는것처럼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와 흑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였다. 평양가방공장,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젓갈가공

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버섯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등 수많은 현대화된 공장들에서는 인민들의 인기를 끄는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왔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 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해내어 식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난 기간 이룩된 모든 기적과 위훈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인에 맞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이끄신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선견지명과 로숙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가 계시어 올해 2018년도 세계가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래일을 확신하며 이 땅의 천만군민은 새해의 첫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그 이름 세계에 떨친 위대한 인민이 올해에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어떻게 성대히 기념하는가를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 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었다.

돌아보면 공화국은 지난해 령사에 류례없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미국집권자는 주권국가의 자주적리리와 자위적행사를 트집잡아 공화국의 **《완전과피》**와 **《절멸》**을 고아대면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으며 추종세력들을 부추겨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책동에 열을 올리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포기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게 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제동을 걸어 어떻게 하나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떨어뜨리려 하였으며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였다. 저들이 자인한바와 같이 보기 드문 위협이었고 참혹한 제재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상상을 부정해버렸다.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으며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역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

에서도 알곡생산량을 늘이고 레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으며 웅장화려한 령명거리와 대규모의 세모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 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시하신 탁월한 병진로선의 승리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 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구절에서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 있다.

물고생이 많은 최전연섬방어대 군인들을 생각하시어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바다항기를 안겨주신분,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에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이 혁명을 한다고 하시는데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두해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나운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지역들을 사회주의조경으로 전변시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강력한 핵억제력, 이것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필승의 보검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었다.

이렇듯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것이 바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멸의 헌신을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도 헤쳐가는 혈연의 관계, 이 가를수 없는 혼연일체와 맞설 무기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도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우시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천출위인이 계시고 일심단결의 최강의 무기가 있어 조선을 건드릴자 그 어디에도 없으며 2018년도에 공화국은 창조와 변혁, 승리의 자랑스러운 령사를 써나가게 될것이다.

현 승 철

